

AI 자본축적, 기술 변화, 분배에 관한 시론적 논의

2026. 4. 안정화

I. 문제 인식

✓ AI 발전은 생산성 제고에 대한 기대 뿐만 아니라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 또한 확산시키고 있음. 고용 감소 우려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소득 감소, 노동과 자본간 긴장을 높이고 있음.

✓ AI가 미치는 영향은 금융, 의료, 법률서비스, 교육 등 서비스업에서부터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서 매우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 그리고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에는 육체를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고용 대체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적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음.

I. 문제 인식

✓ AI의 등장은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음. 기술 진보는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가능하다는 내생적 기술진보의 입장에서부터 이미 AI의 발전이 일정 정도의 특이점을 넘어 통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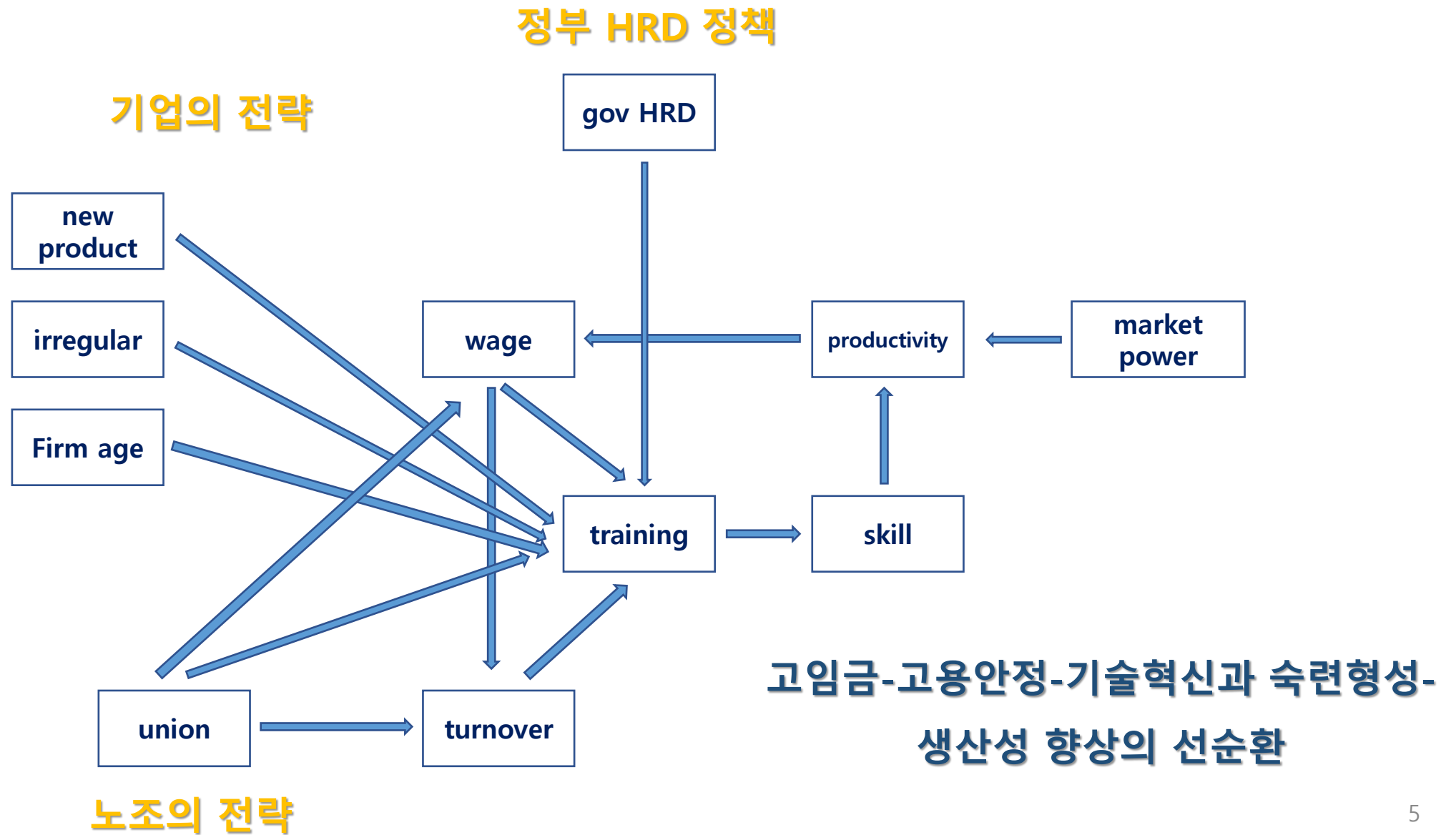
✓ 코리넥(Korinek)의 경우 AI가 노동절약적인 기술 진보일 경우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함께 노동 전반의 궁핍화 가설 제기.

✓ 아세모글루(Acemoglu)의 경우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BTC)를 비판하면서 AI의 고용대체가 심화되고 비약적인 생산성 증가는 없을 것으로 주장.

I. 문제 인식

- ✓ 이와 같이 고용, 임금, 노사관계 등 노동 문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 여기에서는 AI의 등장으로 인한 영향과 과제를 노동을 중심으로 보되, 노동시장, 상품시장, 금융시장 등 포괄적으로 살펴봄.
- ✓ 노동, 숙련, 생산성, 분배, 축적구조 등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살펴볼 필요.
- ✓ 그리고 시론적인 수준에서 연대사회기금을 제안함.

II. '노동, 숙련, 생산성, 분배, 축적 구조'에 대한 기존 모형



Ⅲ. 기존 모형에 대한 문제제기

- 효율임금에 기초한 고속연균형 모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선물모형: Akerlof, 1982
 - 감독모형: 미시 Shapiro and Stiglitz, 1984; 거시 Bowles and Gintis, 1988
 - 효율임금과 임금주도 성장: Cassetti, 2003
- ✓ 고용, 숙련의 대체 가능성
- ✓ 노조를 통한 노동력 독점 공급의 대체 가능성
- ※ 참고 (소비성향과 케인지언 승수효과)
 - Stockhammer의 임금주도성장모형과 이윤주도성장모형 (Lavoie and Stockhammer, 2012 등)
 -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모형

Ⅲ. 기존 모형에 대한 문제제기

✓ 노동시장에서의 특징

- 업종 전반 광범위한 노동 대체
- 숙련편향적 노동 수요보다는 전반적 숙련 대체
-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단기에는 저숙련 노동 대체와 경력사다리 단절.

✓ AI 상황에서는 기업특수 숙련과 산업 특수숙련의 교섭력 약화 가능성. 노동력의 대체 가능성 증가는 노조의 노동력 독점적 공급 가능성 약화 초래.

✓ 평균적인 인간보다 높은 창의성

✓ 경력 25년 미만 의사 대체 가능성

IV. AI와 상품시장 가치사슬

□ AI와 상품 생산 시장에서의 가치사슬 변화

✓ AI 문제는 노동 대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품 가치사슬 구조변화의 문제.

- 가치사슬에 상당한 변화 가능성. 산업간 경계 약화.

✓ 자본 집중과 집적

- 기술과 자본에 대한 과점적 소유구조와 자본 중심의 의사결정시스템. 국가간 격차 커질 것. 구나마 한국은 삼성, SK하이닉스, 현대를 통해 가치사슬 공유.

✓ 자본간 경쟁 격화, 대체가능한 중소자본의 몰락과 소속 노동자들의 실업

※ 앤스로픽의 코웍(새 법률 플러그인), 오픈 AI의 코덱스(바이브 코딩), 구글 지니 3 월드 모델(게임 개발).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법률, 코딩, 게임) 산업을 대체.

✓ 금융자본으로부터의 대규모 차입과 승자독식.

V. AI와 금융시장

□ AI 자본과 금융시장

- ✓ AI 문제는 금융시장과 노동문제가 결합된 문제
- ✓ 과거 금융화는 고용없는 성장이 금융화에 따른 것이었지만(실물투자 없는 성장)(Krippner, 2005; Duménil and Lévy, 2001), 이번 AI 문제는 금융화와 실물투자(반도체, 피지컬AI, 데이터센터, 전력)가 결합되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전 가능성.
- ✓ 금융자본과 결합된 하이퍼의 성장은 AI가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보다는 주주들의 이해(Shareholder Value)를 대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최근 미국 AI 버블 논란은 투자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는 금융자본의 이해 문제
- ✓ 결국 향후 AI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노동(의 이해) 없는 성장으로 귀결될 가능성

I. 문제 의식

□ AI 자본과 금융시장

- 미국 GDP 성장률의 상당부분은 AI 산업에 의한 것(45%).
- 자본간 노동간 자산 격차 확대
-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금융화 가속.
-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실물경제, 생활경제와 무관한 혁신, 주식시장.
- 미국 상위 10% 가계가 전체 가계 주식의 약93% 소유(연준 설문)
- 피케티 '자본'. 자본의 수익률 > 경제성장률 ($r > g$)
- 불평등 해소 위해서는 보유재산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또는 1929년 등 대공황, 1, 2차 세계대전 등 전쟁, 혁명, 체제 전환.
- 1900-1950 또는 2차대전 이후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시기. 법인세. 상속세.

VI. AI와 축적 구조

□ 축적 구조

✓ 지속적인 자본생산성 확보 가능한가의 문제

✓ 고용 축소 속에서 노동몫의 비중 축소(이윤몫의 증가)로는 한계가 있을 것. 결국 이윤율 증가는 자본생산성 제고의 문제

※ 97년 경제위기 직후 한국에서의 이윤율 상승은 자본생산성 증가 없이 이윤몫 상승에 따른 것 (노동몫 감소,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 최근 버블 이후 큰 경기 침체 가능성 제기.

- 향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현재의 AI 기술 발전은 일시적으로 주춤하더라도 계속될 것. 결국 이후 어떤 경제와 사회로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

VII. 문제 의식

- ✓ AI는 특정 제조업이나 직종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 ✓ 고용없는 성장이 노동 없는 성장으로 귀결되기 쉬운 상황
- ✓ AI와 실물자본-금융자본-노동자-국가라는 주체들에 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함.
- ✓ 노동력과 숙련에 대한 수요 감소. 자본생산성 증가와 이윤몫의 증가.
- ✓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들의 독점력 약화와 발언권 감소. 노조와 노동권 약화

Ⅶ. 문제 의식

□ 안톤 코리너(2024)의 분석과 제기한 과제

✓ 기술적 배경과 AGI의 도래: 알고리즘 효율성 증가와 결합하여 AI선응 급격한 향상

- 전문가들은 5~20년 내에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AGI 도래 예측

※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일반 지능): 인간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추론·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AI.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 멜서스 시대: 토지가 제약 요소. 노동은 생존 임금 수준으로 수렴

- 산업화 시대: 생산은 $Y = A F(K, L)$ 의 함수. 임금은 복제 불가능.

- AGI 시대: 생산은 $Y = A F(K, L+M)$ 의 함수. 노동은 복제 가능.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노동의 한계생산성(임금)은 하락. 분배 문제 심화

Ⅶ. 문제 의식

코리넥이 제기한 8가지 정책 과제(Eight Key Challenges)

- 1.불평등과 소득 분배:** 노동 시장 붕괴 시,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은 새로운 분배 메커니즘 필요(기본소득).
- 2.교육 및 기술 개발:** 전통적인 인적 자본 투자 가치가 하락. 교육은 'AI 리터러시'와 기계가 대체하기 힘든 '인간 중심적 역량' 함양으로 재편.
- 3.사회·정치적 안정:** 대규모 실업과 불평등에 따른 불안 요인 가능성. 민주적 제도를 강화.
- 4.거시경제 정책:** 총수요가 인간의 소비에서 'AI 투자 수요'로 이동할 수 있음. 조세 기반을 노동 소득세에서 자본이나 AI 관련 자산으로 이동해야 함.
- 5.반독점 및 시장 규제:** AGI 개발의 승자독식으로 인한 극단적 시장 집중을 억제 필요.
- 6.지적 재산권:** AI가 생성한 혁신의 소유권 문제와,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보상 체계를 재정립.
- 7.환경적 영향:** AI의 막대한 전력 소모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리.
- 8.글로벌 거버넌스:** 국가 간 '지능 격차(Intelligence Divide)' 해소와 AI 안전(Safety)을 위한 국제 협력 기구 필요.

Ⅶ. 문제 의식

※ 렌-마이드너 모델(스웨덴, 1951)

✓ 연대임금정책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임노동자기금

Ⅶ. 노동사회기금(가칭)

- 기본소득을 넘어 자본 소유와 의사결정 참여 필요
- 자본수익률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AI로 인한 초과이윤 일부를 노동사회기금으로 이전.
- 초고소득 노동의 임금 억제. 억제된 임금 중 일부(성과급 일부)는 노동사회기금으로 이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과 초기업 교섭
- AI로 인한 한계 기업, 노동의 퇴출과 전환, 재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제. 고생산성 부분으로 이동.
- 노동사회기금으로 노령연금 이전에 소득(일종의 기본소득 재원) 지급.
-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완전 고용
- 노동사회기금을 통한 AI 기업 등에 경영 참여(기술변화의 사회적 재구성).